



성균관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20차 대학평의위원회		
일시	2019. 1. 31.(목) 16:00	장소	600주년기념관 3층 제3회의실
참석위원	이전오, 조준모, 서수정, 전승호, 조기화, 김준석, 김원갑, 심왕섭 / 전병우, 김중환 평의원 위임장 제출 (이상 총 10명) ※ 신완선 기획조정처장, 박성현 예산기획팀장, 박경민 과장, 이지원 직원(전략기획.홍보팀) 배석		
불참위원	김영호		

1. 개 회

- 이전오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임장을 제출한 전병우, 김중환 평의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
- 전차 회의록은 붙임의 회의록을 목독하고,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평의원들에게 재차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의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서 성균관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신완선 기획조정처장(이하 기조처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설명을 진행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특수대학원 정원은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 하는 것이 중요하나, 단과대학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성과만을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학교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게 시스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다. 기조처장이 단과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재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존학과의 등록률 및 대학원생 충원률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고, 향후 보다 장기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다.
- 김원갑 평의원이 등록금과 계절수업 수강료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가 다른 조항과 달리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다. 박경민 과장이 12월에 시작하는 계절수업과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시기가 정해졌음을 설명하다. 의장이 대평에서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함을 지적하며, 향후 회의 소집이 힘든 경우, 의장에 판단에 따라 서면으로라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다.
- 의장이 평의원들에게 질의사항 또는 의견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한 후 평의원 전체의 동의하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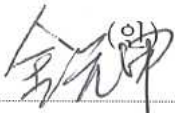

3. 2019학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자문

- 의장이 2019학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박성현 예산기획팀장(이하 예산팀장)이 붙임의 자료와 같이 안건을 설명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근래에 대학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원 채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교원 채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다. 기초처장이 2019년에는 우리대학의 핵심사업인 BK FOUR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VISION2020+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조준모 평의원이 우수한 교원 채용은 우리대학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무조건 채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학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하다. 기초처장이 이 부분은 전공의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며, 추후 학과 및 전공별 교원 채용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하다.
- 의장이 학생경비가 작년 대비하여 20억원 감소되었음을 지적하며 사유에 대하여 묻다. 예산팀장이 국고 사업으로 지원받아 진행하였던 학생사업이 2018학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었지만, 새로운 국고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이 2019학년도에 시작되면 금액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의장이 교내장학금액이 작년 대비 1억원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다. 예산팀장이 외부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사업에 교비 대응자금이 수반되는데, 사업 규모가 줄게 되면 교비 대응자금 부분도 같이 줄기 때문이라고 하다.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기하거나,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교내장학금액은 되도록 감소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를 당부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작년에 신설된 인재교육원이 2019년 교육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지를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현재 기업체와 협력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개정된 강사법이 2019년 8월 1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에 2019년 예산에는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임을 설명하다.
- 서수정 평의원이 의대용역인건비가 20억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하여 묻고, 예산팀장이 연말에 결정되는 인센티브 금액이 유동적이어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었음을 설명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최근 10년간 등록금 인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에 대하여 묻고, 예산팀장이 정부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측에 조심스러움을 설명하고, 다만 외국인학생의 경우 학생규모가 커져서 전담팀 신설, 별도 장학금 지급, 외국인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여 왔음을 설명하다.
- 조준모 평의원이 각 학문단위별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부의 협력 없이는 프로그램이 신설되기 어려움을 언급하다. 기초처장이 혁

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단과대학과 본부의 bottom-up/top-down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의장이 2019학년도 당초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평의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편성(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의장이 17:30에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제2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끝.

이전오	 (인)	조준모	 (인)	서수정	 (인)
전병우	<위임>	김영호	(인)		
전승호	 (인)	김중환	<위임>		
조기화		김준석			
김원갑	 (인)	심왕섭	 (인)		